



해외 닭고기 시장동향 및 전망



박진호 대표이사
(주)메리트무역

국내산 닭고기 시세가 예상외로 선전하고 있다. 일부 매스컴에서는 ‘인위적인 시세’라고 거론하지만 이러한 예상외의 가격급등은 농축산물 시장에서 자연스레 발생하는 1차 생물시장의 특성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월드컵 16강 탈락과 함께 닭고기 특수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받아들여져 많은 육계 계열화 업체들이 대형 마트를 통해 파격적인 세일 행사를 실시했고, 식자재 사건으로 많은 식자재 관련 업체들이 수입육 대신에 국내산 계육으로 구매라인을 바꾼 것도 큰 요인이 되었다.

수입육 업계는 CJ사건을 통해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HACCP 설비 시설을 갖춘 업체는 주문이 폭주하는 반면에 검증된 시설이 없는 업체들은 식자재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식약청과 위생관련 조사를 통해 물량 압수, 벌금, 심지어 영업정지까지 당하면서 크게 위축되고 있는 듯하다.

7월 후반에 들어서면서 건실하게 닭고기 유통을 하던 D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악재가 계속해

서 속출하고 있다.

해외동향을 살펴보면 브라질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고, 청정국 승인을 요청하려던 태국에서 또 다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유럽의 경우 올 상반기 야생조류에 의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건수는 400건이 넘어서었을 만큼 질병발생은 우리와 밀접하게 움직이고 있는 듯하다.

미국

7월 오퍼가격은 왕장각(Jumbo Whole Legs)의 경우 1,100불, 사이즈 장각(Sized Whole Legs)의 경우 1,200불대가 형성되면서 대다수의 수입업체들이 물량확보에 소극성을 보였다.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겠지만, 한국에서 유통되는 가격보다 수입원가가 높아 수입여건이 되지 않았고 공장에서의 필요는 절대물량만이 계약되었다.

8월의 경우 부산항에 도착하는 물량이 상당히 미비할 것으로 보이며, 8~9월에는 국내 유통되는 수입육 가격의 상승이 예측된다.

브라질

최근 몇몇 업체들이 브라질을 방문해서 분기물량을 계약하려는 듯하다. 날개(Wings)를 비롯해서 정육(Bone Less Leg Meat)과 가슴살(Brest Meat)은 꾸준히 통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5월과 6월 계속해서 뉴캐슬병(New Castle)이 발생했었는데, 7월에 와서는 저병원성(H3, H4) 조류인플루엔자로 악화되었다. 8~9월에 고(High)병원성으로 변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질병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이와 같은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

유럽의 경우 상반기 동안 야생조류와 가금류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건수가 600건이 육박하고 있다. 아메리카 대륙이라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 같다.

아시아

청정국 지위를 확보하려던 태국정부의 목표가 7월에 무너졌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AI 방지 프로그램을 실행했었는데, 끝내는 지켜내지 못했다. 사실 7월에 공식발표가 있기 전인 6월에도 여러 징후들이 있었다. 고열과 호흡고란을 겪은 환자들과 알 수 없는 질병으로

가금류가 폐사되는 사건들이 종종 있었다.

중국의 경우 꾸준히 AI관련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사람이 죽기도 하고 닭들이 폐사하기도 한다. 이러한 질병들은 올 겨울에 더 큰 불행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본다.

유럽

덴마크를 비롯해 몇몇 국가들이 성실하게 AI 방지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국제적으로 도덕성을 칭찬받고 있다. 태국과 중국은 물론 브라질, 미국, 이란의 경우 정부발표의 사실여부에 대해 WHO가 많은 의문을 제기했으나, 덴마크의 경우 보고 OIE의 규정을 정확히 이행함에 따라서 H5N1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에 수출을 진행하고 있다.

결론

8월부터 많은 공장들이 휴가에 들어가고 있다. 대략 1주일 정도 쉴 모양이다. 그 때문인지 적정한 물량만 공급받고 있어서 무역업체들이 특별히 바쁜 것 같지 않다. 무역업체들도 휴가 겸 출장으로 태국과 중국행 티켓을 예약하고 있다.

하루 정도는 공장을 방문해서 신제품과 시장 동향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나머지 시간들은 가족이나 동료들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것이다.

해외시장에서 큰 질병 변수가 없다면 8월은 그렇게 조용히 보내질 것 같다. 🐔